

2019년 1월 11일

#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유지되며 상승 셋다운 장기화 우려는 상승폭 제한 요인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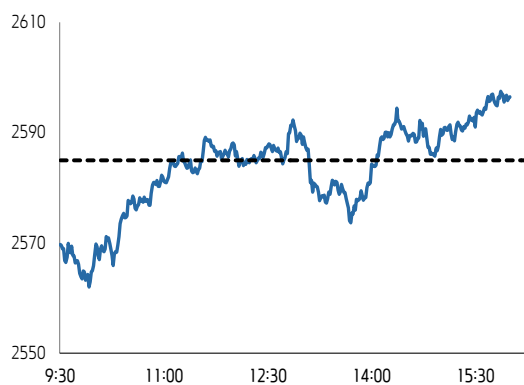
미 증시는 소매유통업체 실적 둔화 및 셋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 하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힘입어 상승 전환 하기도 했음. 오후 들어서도 파월 연준의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언급했으나, 금리인상 지연 시사 발언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유지되며 상승 마감(다우 +0.51%, 나스닥 +0.42%, S&P500 +0.45%, 러셀 2000 +0.46%)

미 증시는 ①소매 유통업체 실적 둔화 ②파월 연준의장 발언 ③셋다운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17.69%)가 연말 연시 이익과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연휴가 끝나면서 소매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고 발표. 최근 백화점 업체들은 아마존과의 경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견고한 경기와 소비지출에 안도감을 가질 것으로 전망 해왔었음. 그러나 메이시스가 우려스러운 전망과 가이드를 하향 조정하자 관련 기업들이 급락.

파월 연준의장은 워싱턴 경제 클럽에서 연설. 파월은 “근본 경제지표는 경기 둔화를 가르키지 않는다” 라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더불어 “셋다운이 길어지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견하지는 못했다” 라고 주장. 다만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며, 중국의 둔화가 우려스럽다” 라고 언급해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 한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리인상에는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주장.

한편, 셋다운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다보스포럼(22~25 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파월 연준의장이 셋다운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했으며, 전일 신용평가사 피치는 셋다운 장기화 되면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발표. 그러나, 트럼프와 민주당은 자신의 주장만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주저하는 모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3.28	-0.07	홍콩항셱	26,521.43	+0.22
KOSDAQ	683.34	+0.53	영국	6,942.87	+0.52
DOW	24,001.92	+0.51	독일	10,921.59	+0.26
NASDAQ	6,986.07	+0.42	프랑스	4,805.66	-0.16
S&P 500	2,596.64	+0.45	스페인	8,856.80	+0.38
상하이종합	2,535.10	-0.36	그리스	633.20	-0.79
일본	20,163.80	-1.29	이탈리아	19,300.74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유통업체 부진

메이시스(-17.69%)가 연말 쇼핑시즌에서 뚜렷한 매출 성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며 실적 가이드를 기준 주당 4.10~4.30달러에서 3.95~4.00달러로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콜스(-4.81%), TJX(-0.38%), JC 페니(-4.48%) 등 백화점 업체는 물론 연말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발표했던 타겟(-2.85%)도 하락 했다. 의류업체 L브랜드(-4.39%)는 부진한 매출 전망에 하락 했다. 갭(-3.11%), 노드스트롬(-4.04%)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알파벳(-0.26%), 마이크로소프트(-0.64%), 아마존(-0.19%) 등 대형 기술주는 미 산업안전국의 신기술 수출 제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하락 했다. 반면, 마이크론(+1.33%), 인텔(+1.15%), TI(+1.54%), NVIDIA(+1.86%) 등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및 번스타인의 마이크론 투자이전 상향 조정 효과로 추정한다. 보잉(+2.55%), 캐터필러(+2.06%), 디어(+3.10%) 등 산업재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9%	대형 가치주 ETF	+0.49%
에너지섹터 ETF	+0.98%	중형 가치주 ETF	+0.75%
소매업체 ETF	-1.60%	소형 가치주 ETF	+0.34%
금융섹터 ETF	+0.04%	배당주 ETF	+0.21%
기술섹터 ETF	+0.44%	변동성 ETF	-1.02%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7%	대형 성장주 ETF	+0.48%
인터넷업체 ETF	+0.38%	중형 성장주 ETF	+0.63%
리츠업체 ETF	+1.59%	소형 성장주 ETF	+0.67%
주택건설업체 ETF	-0.25%	신흥국 고배당 ETF	+0.67%
바이오섹터 ETF	+1.3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7%
헬스케어 ETF	+0.19%	하이일드 ETF	+0.49%
곡물 ETF	-0.75%	물가연동채 ETF	-0.24%
반도체 ETF	+1.01%	Long/short ETF	-0.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1.17	+0.33%	+7.73%	-0.58%
소재	328.76	+0.87%	+6.31%	+1.74%
산업재	572.00	+1.44%	+8.23%	+0.76%
경기소비재	828.59	-0.23%	+7.39%	+1.17%
필수소비재	528.66	+0.61%	+2.47%	-6.18%
헬스케어	1,013.96	+0.24%	+4.99%	-3.67%
금융	406.03	+0.12%	+4.18%	+0.14%
IT	1,117.07	+0.46%	+8.05%	-2.59%
커뮤니케이션	147.27	+0.20%	+6.35%	+1.57%
유틸리티	271.44	+1.41%	+2.79%	-5.15%
부동산	197.95	+1.55%	+4.79%	-5.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전기전자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431 계약)에 힘입어 1.45pt 상승한 267.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1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인상 시기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섀다운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은 부정적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2 월 20 일 5G 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부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준이, 1,3 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경우 상반기에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부문에 대해 감세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 또한 긍정적이다. 이는 향후 대 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섀다운, 브렉시트 표결, 상무부의 신기술 수출규제 관련 보고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상승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프랑스 산업생산 둔화

프랑스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3%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여파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높였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23.3 만건이나 예상치(22.4 만건)보다 감소한 21.6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부문 감세 가능성이 부각되자 수요 증가 기대감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이어지자 신흥국 환율에는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가 경제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다고 발표하자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하락했다. 더불어 프랑스 산업생산이 둔화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이었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표결(15 일)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유지되자 상승 했다. 한편, 3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36 배)보다 낮은 2.19 배를 기록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이었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인상 시기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상승폭은 제한 되는 등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로 소폭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0% 상승한 반면 철근은 0.20%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59	+0.44	+11.68	Dollar Index	95.558	+0.36	-0.78
브렌트유	61.68	+0.39	+10.24	EUR/USD	1.1498	-0.39	+0.91
금	1,287.40	-0.36	-0.57	USD/JPY	108.46	+0.27	+0.72
은	15.643	-0.58	-0.97	GBP/USD	1.2746	-0.34	+0.93
알루미늄	1,861.00	+0.46	+1.42	USD/CHF	0.9849	+1.08	-0.19
전기동	5,930.00	-0.47	+3.38	AUD/USD	0.7183	+0.18	+2.53
아연	2,461.00	-1.24	+3.45	USD/CAD	1.3238	+0.22	-1.85
옥수수	376.25	-1.51	-0.92	USD/BRL	3.7114	+0.83	-1.28
밀	513.75	-1.20	0.00	USD/CNH	6.7926	-0.29	-1.31
대두	906.75	-1.87	-0.66	USD/KRW	1118.30	-0.34	-0.83
커피	104.25	-1.00	+2.06	USD/KRW NDF1M	1117.14	-0.03	-0.69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28	+1.78	+17.43	스페인	1.448	-4.10	+2.20
한국	1.960	-1.80	-0.20	포르투갈	1.712	-5.80	-5.10
일본	0.024	-0.80	+2.10	그리스	4.305	+1.90	-8.30
독일	0.255	-2.40	+10.20	이탈리아	2.887	+1.10	+2.90